

피스모모 ×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 배움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진행자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7

목 차

I. 시작하는 말 · 4

II. 병역거부 A to Z · 7

1.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 7

-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의 자유
 -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
- 병역거부의 다양한 양심
 - 종교적 신념과 평화주의
 -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2. 병역거부, 평화를 위한 저항 · 11

- 전쟁에 대한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 전쟁을 막기 위한 실천, 병역거부
 -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책임
- 전쟁을 거부한 여성/비남성들
 - 넓은 의미의 병역거부
 - 여성병역거부 선언
 - 다양한 전쟁거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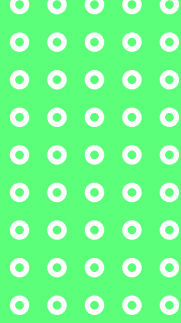
3. 대체복무제 · 15

-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성격
 - 다른 나라의 사례
-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쟁점들
 - 징벌적 제도 VS 악용 가능성 막아야
 - 양심의 자유 침해 VS 가짜 양심 가려야
 - 모두가 병역거부 할 수 있어야 VS 군인은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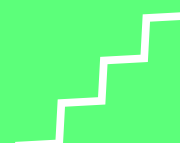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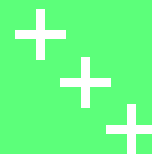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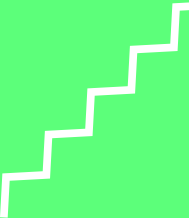
III. [활동안] 병역거부, 배움의 공간 안에서 활동과 토론을 통해 이야기 해보기 · 20

1. 병역거부와 나를 포개어보기: 각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2. 스펙트럼 토론
3. 병역거부와 평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기
4. 닫는 활동: 함께 돌아보기

참고자료 · 32



I. 시작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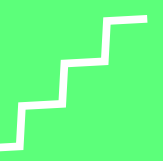


I. 시작하는 말

군대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군대에 대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빨갱이라고 몰리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잡혀가거나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요즘에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없어졌지만 공정성이라든가 젠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병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켠에 질문은 여전합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거부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을까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는 것 말고 더 풍성하고 세밀하게 이야기 나눠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한 발짝, 거리두고 보았을 때 더 잘 보이는 질문들을 같이 나누고자 이 교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안을 시작하기에 앞서,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문장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애초에 군대를 다녀왔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이지만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이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여러 질문들. 하나 하나 답해보기 위해서는 군 복무제도를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고 작동하도록 만드는 여러 문화와 제도들을 따져보아야 할테지요. 그 이후엔 내 일상과의 연결, 배움과의 연결을 가능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납작하게,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것을 펼쳐보고 요리보고 조리보고 낯설게 보고 다르게 해보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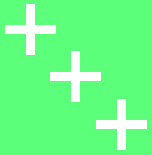
이 교안에서는,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병역거부의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서 출발한 병역거부가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으로 발전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병역거부 운동이 군사안보와 군사주의에 던진 질문도 이 교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2020년 시행된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러 쟁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활용하기 좋은 여러 교육안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안이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는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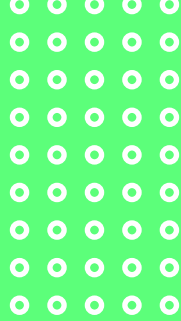


배움의 시공간을 둘러싼 문화와 제도,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병역거부를 펼쳐보는 작업은 문장 하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보려는, 보이지 않는 실을 찾아내려는, 평화를 조금씩 만들어가려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애정, 지지를 가득 전하고 싶습니다.

배움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용기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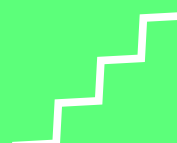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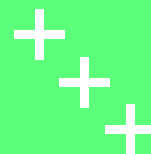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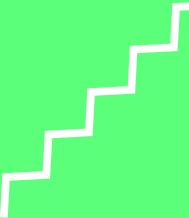
2020년 12월 1일
전쟁없는세상과 피스모모 드림





II. 병역거부 A to Z

1.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2. 병역거부, 평화를 위한 저항
3. 대체복무제



II. 병역거부 A to Z

1.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심’의 의미입니다.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이면,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어진 마음을 뜻하는 ‘양심’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양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상정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96헌가11)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잘못된 일이 없는데 반성문을 써야 하는 학생, 상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직장인, 회사의 비리를 알아차렸지만 그걸 침묵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야하는 일을 일상에서 겪을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습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는 공기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때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침해당할 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보통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이나 다수의 생각과 개인의 양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현실적으로는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다수의 양심은 사회에서 침해당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입각해 국가를 통치하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양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까지 헌법에 명시한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 헌법은 기본법 제4조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데, 3항을 보면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징집 병역이 강제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또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 10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며, 각 국가의 법률들은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 처음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 되고 정부를 수립하며 제헌헌법을 만들 때입니다. 그 논의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9조가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만 보장될 뿐 일반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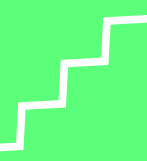
양심의 자유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 것은 군사독재 시절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사상전향서를 강요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 때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필요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 이냐”는 질문처럼 ‘양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였지만, 비전향장기수나 병역거부자처럼 감옥까지도 감내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만의 권리처럼 양심의 자유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권리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거나 문제투성이라도, 감옥갈 각오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때로는 불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병역거부의 다양한 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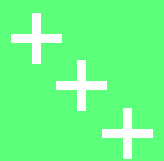
종교적 신념과 평화주의

병역거부의 양심이 국가의 징병과 갈등을 빚은 가장 오래된 사례는 495



년 누미디아(현 리비아)에서 로마군 입대를 거부한 막시밀리아누스 사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 신자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막시밀리아누스 이후에도 오랫동안 소수의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기독교 평화주의 교파인 퀘이커와 메노나이트 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했고, 동양에서는 일부 승려들이 불살생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병역거부의 역사는 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의증인 신자들은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거의 전원이 감옥에 잡혀들어난 뒤 지금까지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방된 뒤에도,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군과 인민군 모두에서, 군사독재 정부와 이후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은 민주 정부에서도 병역거부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19,000여명이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와 의증인 외 다른 종교인들도 소수지만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효림스님과 김홍술 목사님은 1970년대에 각각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여호와 의증인이긴 하지만 불교, 천주교, 기독교(제7일안식교, 메노나이트 등등), 성공회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2001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에,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병역거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군사주의가 성차별을 강화하기 때문에 군대를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농사꾼이 낫질이 아니라 총질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병역거부를 하는 농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손에 총을 쥘 수 없어서 군대를 거부한 초등학교 교사, 이라크 전쟁 파병을 반대하는 군인, 용산참사를 겪으며 국가폭력에 동참할 수 없어서 병역거부를 하는 학생운동가 등 병역거부의 이유와 양심의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부당한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과 평화주의자들 대다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합니다. 반면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옳바르지 못한 전쟁, 혹은 부당한 군사작전이나 명령만을 거부하는 병

역거부자들도 있습니다. 양심은 ‘진지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지만 각각의 양심의 내용이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전쟁이나 명령, 작전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병역거부를 선택적 병역거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화주의나 종교적 신념처럼 비교적 강력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특정한 시기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면 이처럼 양심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서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당시 시위대는 평범한 광주시민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안병하 국장은 이 일로 직위해제 되고 나중에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안병하 국장은 당시 군인은 아니었지만 무력을 행사 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 측면은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연결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한 강철민 당시 이등병도 선택적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는 외국 군대가 우리 나라는 쳐들어 오면 자진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자신은 평화주의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전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침략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신이 직접 파병되는 것은 아니지만 침략군대의 일원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선택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을 다룬 영화나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2005년 개봉하여 수백만명의 관객을 모았던 영화 <월کم 투 동막골>에서 신하균 배우가 연기한 표현철 중위가 대표적입니다. 표현철 중위는 피난민이 가득한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에 반발에 탈영을 하는데 이 또한 선택적 병역거부입니다. 전쟁 중에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군인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평화주의자거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겪을 고초를 감수하며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2. 병역거부, 평화를 위한 저항

전쟁에 대한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전쟁을 막기 위한 실천, 병역거부

병역거부가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입니다. 20세기 초반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을 경쟁적으로 벌이던 시기로, 전쟁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져서 모든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반면 폭격기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군인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차세계대전 당시 한 무리의 평화활동가들은 ‘전쟁터에 군인이 없으면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간 것이 바로 병역거부 운동입니다. 시민들이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병역거부를 실천했습니다. 이때부터 병역거부 운동은 방법적으로는 시민불복종의 모습을 띠었고, 내용적으로는 전쟁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라크전쟁 등 거의 모든 전쟁에서 병역거부는 반전운동의 중요한 실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사람들과 싸우기를 거부했던 복싱 세계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나 인기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자 조지 R.R. 마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도 이라크 전쟁 당시 강철민 이등병을 비롯한 여러 평화활동가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존 롤스의 정의를 따르자면 “법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뜻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이나 정책을 의도적으로 어겨서 처벌 받아 그 부당함을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정치적 행위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그를 통해 해당 법률이

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불복종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미국의 멕시코 침공이 부당하다며 전쟁세 납부를 거부했고 그 결과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때 쓴 책이 바로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모든 병역거부 행위가 시민불복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의 경우 시민불복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병역거부는 소수의 종교인이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입니다. 이후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 성격의 병역거부가 전쟁 때마다 이어집니다. 위에서 소개한 무하마드 알리, 조지 R.R. 마틴,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적극적인 시민불복종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평화운동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책임

시민불복종은 시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결정이나 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복종함으로써 잘못된 결정이나 정책을 바꾸어 내는 힘이 있다는 생각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정당하게 발휘되는 것에 시민들의 몫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시민들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경우,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군인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유지되는 데는 시민들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네의 일기>에서 안네 프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쟁의 책임이 위대한 사람들과 정치가, 자본가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싫었다면 너도나도 들고일어나 혁명을 일으켰어야지요”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극적으로 살아돌아와서 자신의 경험을 여러 권의 책으로 남긴 작가 프리모 레비는 전쟁 범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중략) 나는 바로 이런 고의적인 태만함 때문에 그들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간인가>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병역거부입니다. 물론 병역거부는 나라마다 법률에 따라 처벌 받거나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국가의 정책이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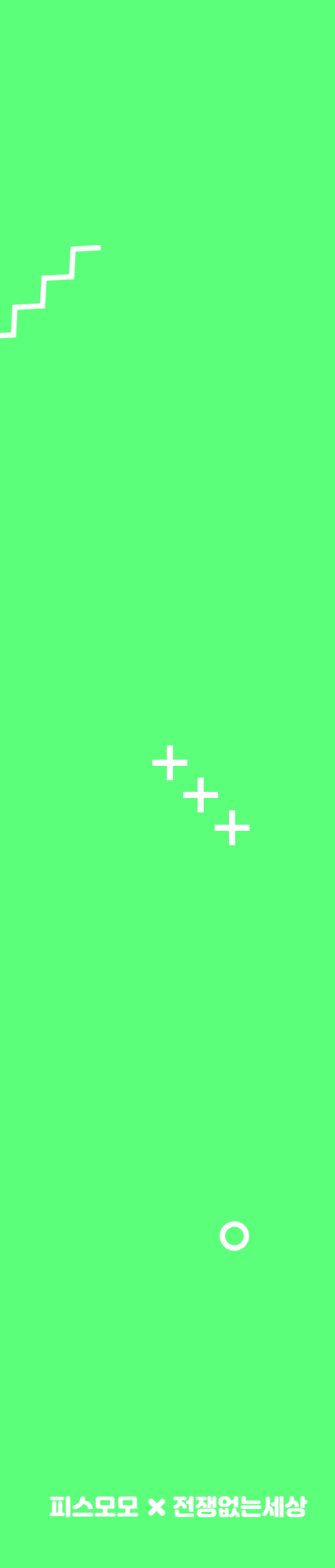
전쟁을 거부한 여성/비남성들

넓은 의미의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전쟁에 동참할 것을 거부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입영영장을 받고,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군인만 있어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은 여러 면에서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으로 전쟁을 막아서는 실천이 병역거부라면 입영영장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식으로 전쟁에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병역거부입니다.

여성병역거부 선언

병역거부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이름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평화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남성만이 징집 대상이고 병역거부자도 대부분 남성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징병대상자가 아닌 나라에서도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병역거부가 꼭 입영영장을 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터키의 평화활동가



동가 페르다 울체시는 여성으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울체시는 전쟁의 근저에 깔린 군사주의가 가부장제나 성차별주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시켜가는지를 비판하며 전쟁을 유지시키는 군사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맞서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평화화물동가 숲이아가 여성으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이듬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는 여성평화활동가 3명(최성의, 엄문의, 왕유첸)이 병역거부를 했습니다.

다양한 전쟁거부자들

현대의 전쟁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외에도 전쟁을 위해 필요한 일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전쟁과 맞닿아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그런 곳들에서는 전쟁에 맞서기 위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무기 거래상이 고용한 홍보회사의 카피라이터, 전쟁을 미화하는 교재를 가르칠 것을 요구 받는 교사, 전쟁 범죄자들이 만찬을 벌이는 호텔의 요리사, 대량살상무기의 핵심 부품을 운송하는 운송회사의 노동자들, 군부독재자들의 예금을 보유한 은행의 은행원 등, 이 리스트는 끝없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의 운동의 핵심은 ‘군대에 가지 않고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속되는 구조와 내 삶을 분리시키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3.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성격

대체복무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종교적, 정치적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존재하는데 보통의 경우 사회복지, 환경보호, 재난 구호와 같은 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에서는 대체복무가 군복무와 비교해 또 다른 징벌이 될 정도로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군과 독립되어 철저하게 민간 영역에서 군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어긴 회원국들에는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었고,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어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대체복무 심사가 시작되었고, 2020년 10월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대체복무는 군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입영 전 혹은 예비군 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국가	복무 분야	기간 (대체복무/군복무)	특징
그리스	병원, 요양소, 지방정부	15개월/9개월	
대만	요양병원, 사회복지, 지진 구조	4개월/4개월	
알바니아	병원, 인도적 사업 기관, 화재 구조, 환경보호	12개월/12개월	2010년 징병제 폐지
러시아	정부기관(산업자원부, 노동부, 국방부), 기상예보, 건설, 교도소	21개월/12개월	

오스트리아	사회복지, 환경보호, 도로 안전, 난민신청자 지원	9개월/6개월	2015년 징병제 폐지
폴란드	사회복지, 환경보호	18개월/9개월	2009년 징병제 폐지
몽골	인도적 사업 기관	24개월/12개월	
스위스	환경보호	390일/260일	
키르기스스탄	재난 구조	24개월/12개월	
노르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리 부서	(13개월)/12개월	13개월로 대체 복무제를 운영했 으나 지금은 대 체복무제를 폐 지. 노르웨이 에서는 병역거부자 는 군대 면제
아르메니아	요양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36개월/24개월	
벨라루스		36개월/18개월	

대체복무는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제도지만 2020년 현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서는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시행한 국가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복무 영역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개 이상의 영역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했습니다. 러시아처럼 정부기관이나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의료, 사회복지, 재난 구조, 환경보호, 인도적 사업 같은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를 운영했습니다. 복무 기간을 보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곤 모두 24개월 미만입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도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만 2배일 뿐 모두 1.5배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운영했다고 평가를 받는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병역거부자들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독일이 징병제 종단을 미룬 까닭이 군사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대체복무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영역이 약화될까 걱정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대체복무제가 주로 돌봄 노동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여성의 일로 여겨지던 돌봄 노동 영역에 젊은 남성들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독일 사회 전체가 성별화 된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쟁점들

징병적 제도 VS 악용 가능성 막아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가 현역 군복무에 비해 가혹하거나 징병적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체복무제의 기간이 현역 복무보다 길어서는 안 되고 만약 길 수밖에 없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현역 군복무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대해 유엔은 지속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체복무는 현역 군인의 2배인 36개월로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기준인 1.5배보다 차이가 더 큼니다. 그리고 36개월이라는 기간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현 대체복무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징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거둬 비판을 받을 것이니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제도 악용을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인 인권적인 측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기간이 실제 제도 악용과 큰 연관이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국가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2018)

반면 제도 악용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을,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필연적으로 목숨을 건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군대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야만 병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 VS 가짜 양심 가려야

가짜 양심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자를 심문하는 검사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입각해 병역거부자를 대합니다. 일부 검사들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별하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 내역(폭력적인 게임을 했는지), 영화 구매 내역(폭력적인 영화를 봤는지), 핸드폰 위치 추적(종교인의 경우 주말마다 종교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양심을 판별한다면서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비판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에 대해 검사들이 잘 모르거나 지나

치게 기계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아직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이른바 내심의 자유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혹은 양심을 타인이 증명하고 판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양심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편이었다가 이것이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마주하고, 우려했던 것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서 점차로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양심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본질적으로 과연 양심의 자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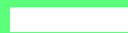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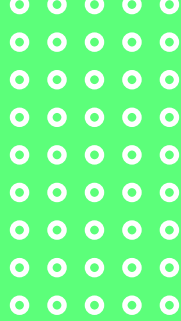
모두가 병역거부 할 수 있어야 VS 군인은 예외

한국에서 모든 입영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입영하기 전까지, 그리고 군복무 후 예비군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은 병역거부권이 없으며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허용한다면 군기강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군인 또한 국민이며 군인의 의무 이전에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이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군인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차별이라 지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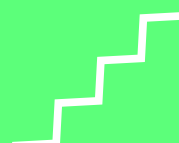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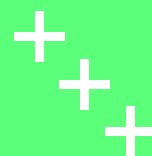
이 쟁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한다면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 국가 안보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은 군사적인 수단(강한 군대)으로만 지켜질 수 있을까? 만약 군사력 유지가 아닌 다른 안보 수단이 존재한다면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안보 태세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III. [활동안] 병역거부, 배움의 공간 안에서 활동과 토론을 통해 이야기 해보기

1. 병역거부와 나를 포개어보기: 각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2. 스펙트럼 토론
3. 병역거부와 평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기
4. 닫는 활동: 함께 돌아보기



활동에 앞서

- 제안된 활동들은 참고자료일뿐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상황과 참가자에 맞게 얼마든지 응용하고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는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참가자의 이야기를 촉진하고 연결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가자의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과 주제와 연결된 개념, 키워드, 참고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 다양한 의견과 생각, 질문이 개진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공동체 약속 또는 제안을 함께 나누며 시작해도 좋습니다. (키워드 : 달라도 괜찮아, 뭐든지 OKAY, 서로배움)
- 무리해서 어떤 합의나 결론에 이르거나, 교훈적 메시지로 배움이 단순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해당 이슈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 이해, 관심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참여자에게 해당 주제는 전혀 관심 밖의 주제일 수도 있겠지요. 적극적 서로배움을 위해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해당 배움 진행에 대한 의사를 묻거나, 주제와 관련된 읽기자료나 영상 등을 미리 공유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병역거부와 나를 포개어보기: 각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병역거부는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 군입대를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반군사주의/평화주의자 국제 네트워크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서는 군인이 특정 명령이나 전쟁 참여를 거부하는 것, 교육자가 학교에서 전쟁 미화 교육을 거부하는 것, 노동자가 전쟁 무기 생산을 거부하는 것, 지역 주민이 거주지에 군 또는 전쟁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등 시민들이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전쟁에 동참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병역거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병역거부의 스펙트럼을 군대 너머로 확장하면,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자 하는 개별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과 병역거부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만약 내가 전쟁과 관련된 상황 속에 처해있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상상해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나와의 교차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활동목표

병역거부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동기, 개인과 집단의 신념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간다.

시간 30-50분

준비물 O/X 카드(선택), 상황설명 PPT

진행내용

- 1) 각 상황별 이야기를 참여자와 공유하고 각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묻습니다. O/X 카드 등 참여자의 선택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도 좋지만, 그 경우에도 열린 선택지(주관식 선택지)를 늘려둘 수 있도록 합니다.
- 2) 각각의 선택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4-5명의 모둠토론으로 진행해도 좋고, 짧은 인터뷰 형태로 몇명을 초대하여 의견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 3) 몇개의 다른 상황 속에서 위 1-2를 반복합니다.
- 4)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아래의 질문을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느낌? 생각? 불편했던 지점? 고민되었던 것?
 - 병역거부와 지금 한 활동을 연결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 만약 이야기 속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전쟁에 동참하는 행위를 모두 거부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 병역거부를 나의 언어로 새롭게 다시 정의해본다면?
-

■ 상황 1. 내가 수리하는 항공기가 누군가를 죽이는 전투기라면?

첫 번째 선택

나는 롤스로이스 공장의 수리 작업자이다. 최근 회사에서 내게 엔진 수리를 맡긴 항공기가 “호커 헌터”라는 이름을 가진 전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전투기는 이웃 국가의 군부 쿠데타 당시에 대통령궁을 공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죽였던 살상 무기였다. 이 전투기가 수리되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것이다. 나는 이 전투기를 수리할 것인가?

두 번째 선택

해당 전투기의 실체를 알게 된 나의 동료 노동자 4,000명 전원이 모두 엔진 수리를 거부하거나 전투기들이 공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선택은?

■ 상황 2. 내 앞에 놓인 다리 폭파 버튼

첫 번째 선택

나는 이웃나라와의 전쟁에 참전한 군인. 이웃나라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진격해오고 있고, 수도는 곧 함락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공격을 피해 수도에서 다른 마을로 피신했다. 더 큰 전쟁 피해를 막아야한다며, 수도와 다른 마을을 연결하는 주요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이 나에게 내려왔다. 지금 그 다리 위에는 500명 이상의 피난민들과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선 상황. 다리를 폭파하면 그들은 모두 처참히 목숨을 잃게 된다. 위급한 전시 상황에 군인으로서 상부 명령을 거부한다면 내 목숨도 위태로워진다. 지금 내 앞에 폭파버튼이 있다. 나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

다른 루트를 통해 들은 정보로는 아직 수도 함락까지는 7-8시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수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바로 상황을 알린다면 지금 다리에 있는 수백명을 비롯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피신했고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만약의 급변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지금 바로 폭파 버튼을 누르고 적의 진로를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나의 선택은?

■ 상황 3.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나의 선택은?

첫 번째 선택

나는 군인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정부는 베트남전 파병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 전쟁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에 내몰린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에게 베트남 전쟁 차출 명령이 내려졌다. 내가 파병되기를 거부한다면 거부하면 감옥에 가게 된다. 나는 어떤 선택

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선택

나는 부당한 전쟁인 줄 알지만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에 입대했고 전쟁에 투입된다. 실제 베트남에 와서 본 전쟁의 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혹하다. 그러던 와중 어느 마을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사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적(베트콩)이거나 적에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마을에는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도 있다. 그들이 베트콩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고, 나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명령을 거부하면 나는 교도소로 보내질 것이고 우리 부대는 예정대로 사람들을 사살 할 것이다. 나의 선택은?

세 번째 선택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돌아왔다. 전쟁은 끔찍했다. 사실 나는 무사하지 못하다.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는 전쟁 뒤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평생을 전쟁 트라우마 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났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한다. 나의 손자는 직업군인인데, 이라크에 파병되는 부대 소속이다. 지금 그는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병역거부 해라? 하지 마라?

.....

■ 상황 4. 나가사키 원폭투하와 그 후

배경 설명

제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오랜 전쟁으로 전세계가 모두 지치고 황폐해진 상태다. 전쟁을 더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군의 적국인 독일은 항복하고 이제 일본만 남은 상태. 원자폭탄 두 개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미국은 6개월간 일본의 도시 67개에 전략상 집중 포격을 실시했다. 이때 퍼부은 폭격의 양은 독일에 5년간 퍼부은 폭격의 양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고 있다. 전쟁을 끝낸다는 명분으로 연합군 정부는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고 목표도시를 설정했다. (도시 설정 기준: 큰 도시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가장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도시).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첫번째 목표도시였던 히로시마에 원폭 “리틀보이”를 투하한다. 히로시마의 인구 약 30%(7~8만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7만여명이 부상을 당한다. 약 90%의 의사와 간호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 : “히지야마산에 올라가 내려다 보았다. 지금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 많은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으나, 이번의 충격은... 히로시마가 사라졌다. 그야말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의 모습이란... 피부가 모두 검게 타고 그슬려버렸다. 머리로 타서 없어졌고. 처음보면 사람의 앞뒤를 구분할 수 없었다. 대부분 팔이 굽은 채 걸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아침, 미국의 비행 중대는 두 번째 원자폭탄 “팻 맨”을 싣고 두 번째 목표 도시 고쿠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륙 전 항공기의 연료 공급 펌프의 이상 발견되었으나 그대로 이륙했다.

첫 번째 선택

나는 두 번째 도시를 폭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비행중대원이다. 지금 원자폭탄을 싣고 두 번째 목표도시인 고쿠라로 향하고 있다. 임무 계획은 히로시마 임무와 거의 동일하다. 원폭 투하용 폭격기와 기상 관측 및 위치 확인용 비행기 2대가 동시에 이동 중이다. 기상 관측 담당 비행기가 고쿠라에 다다랐으나 구름이 도시 70% 가려버려서 육안으로 폭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도시 상공을 3회 배회한 후, 대체 목표 도시인 나가사키로 향하게 된다. 내가 타고 있는 폭격기는 예비 탱크의 연료 공급 펌프 고장으로,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나가사키에서도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시 원폭을 그대로 바다에 버려야할 상황이다. 연료가 거의 떨어져가는 마지막 1분에 시야가 확보되어 육안으로 타격지점을 확인했다. 내가 원폭을 투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중대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나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

원폭은 투하되었고,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 후 원폭 피해와 관련된 많은 뉴스들을 보고 들었다. 원폭 투하 당시의 사망자와 부상자의 피해도 상당했지만, 이후 피폭된 지역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과 후유증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참혹했다. 피폭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그 후 5년간 약 25~3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추산된다. 뿐만 아니

라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암과 피부병, 신체의 심각한 장애, 유산 등 심각한 피폭 후유증이 대를 이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폭 생존자들의 끔찍하고 절절한 이야기와 피해 사진들, 영상을 본다. 이 모든 피해사실을 다 알고 있는 채로, 다시 1945년 8월 9일의 그 폭격기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

세 번째 선택

나의 국가는 아직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에도,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주요한 핵무기/시설 사고와 그 이후 참상도 지켜보았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핵 운동에 함께하고 있다. 나는 반핵 캠페인을 펼치는 한 단체에서 열린 포럼에 참여를 초대 받았다. 나는 그 곳에 참여하고 싶은가? 참여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가?

.....

■ 상황 5. 간호사들의 병역거부?

첫 번째 선택

나는 적십자 간호사다. 나의 국가 헌법에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적십자사에서는 소집영장을 간호사들에게 발부하여 이웃나라의 전쟁에 간호사들을 동원하고자 한다. 나에게서는 아직도 생생한 전쟁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다시 전쟁의 협력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의 간호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험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집영장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나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

현실적인 이유로 결국 병역을 거부하지 못한 나는 병참병원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나는 (남성 중심의) 병역 문화 속에 성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출근을 위해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비병으로부터 몸수색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싫은 일이다. 여러 성폭력 피해 사례가 누적되며 간호사 동료 사이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동료가 아는 주요 언론사 기자에게 이 문제를 함께 알리고 공론화하자고 제안한다. 나의 선택은?

△ 교안에 담긴 5가지 상황은 실제 역사나 사례를 참고하여 각색 및 이야기를 창작한 것입니다. 일부 설정은 상상력을 가미한 가상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 심아정, 여성들의 병역, '거부'와 '복무' 사이 (일다, 2020. 6. 8)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 274p (경계, 2018)

알아두면 좋아요!

- 다음에 나오는 “스펙트럼 토론”을 응용해서 각 상황별 선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활동은 참여자의 정의로움이나 윤리성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주시고, 참여자들에게도 상기시켜주세요. 각 상황 속 주인공에게 최대한 가까이 몰입해보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 맥락을 가늠해보는 시뮬레이션 활동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존중될 수 있는 안전한 배움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본 활동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활동 중 '용기 있는 선택' 또는 '윤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부족함이나 결점이 아니라는 점,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여자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주세요.

2. 스펙트럼 토론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쟁은 늘 뜨겁습니다. 모 아니면 도,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 대립구도에 몰두하여 내용의 본질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갈등만 점점 첨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화, 단순화할 수 없는 우리 안의 무수히 미묘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들여다보며, 병역거부를 둘러싼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성찰해봅니다.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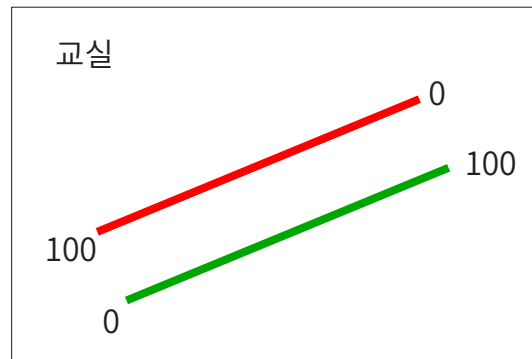
- 병역거부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말하고 서로 듣는다.
- 민감한 주제에 대해 민주적 토론, 다름을 존중하는 소통, 평화감수성에 기반한 대화를 모색하고 경험한다.

시간 40분

준비물 색깔 뚜렷하게 구분되는 2개의 셀로판 테이프, 점수표지, 포스트잇, 필기구

진행내용

- 1) 교육공간을 가로지르는 2개의 색이 다른 선을 셀로판 또는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두고, 양 끝에 각각 100과 0을 표시합니다.



- 2) 참가자를 빨강, 초록 두 그룹으로 나눈다. 빨강 그룹과 초록 그룹이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선을 따라 각각 일렬로 앉도록 안내합니다.

- 3) 진행자가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진행자가 보여주는 문장을 보고, 그에 대한 각자의 찬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위치를 정하여 앉는다. 내 양 옆에 앉은 사람들과 점수를 비교해보면서 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앉는다.

- 4) 진행자가 토론 문장을 하나 보여줍니다. 참여자는 그 문장에 대한 나의 찬성 정도를 점수화하여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참여자 각자의 찬성 점수에 따라 위치를 정하여 앉습니다. 반드시 양 옆의 2인과 점수를 확인한 후 앉도록 합니다.

문장예시

- 국가안보를 위해 몇몇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군대는 꼭 필요하다.
- 양심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 대체복무 기간을 현 육군의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 5) 먼저 점수 차이가 적은, 양 옆에 앉은 사람과 점수 차의 요인을 확인하며 각각 2~3분씩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50점인 사람 옆에 52점이 앉아있다면 2점의 점수차는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6) 이번에는 점수 차이가 큰,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앉은 사람과 점수 차의 요인을 확인하며 이야기해봅니다.
- 7) 이야기를 마친 후, 그 과정을 통해 위치가 변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할 기회를 줍니다. 변경 이유도 들어봅니다.
- 8) 문장을 바꿔가며 2~3번 정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 9) 활동을 마치며, 각자의 최종 점수와 이유를 색지나 포스트잇에 키워드로 적어 벽에 점수의 순서대로 붙이고 함께 살펴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 풍성한 논의를 위해 스펙트럼 토론의 점수가 다양하면 다양할 수록 좋습니다. 소수점 첫 째자리까지 점수를 매겨 되도록 겹치는 점수가 덜 나오도록 안내해주세요.
- 어떤 문장에 대한 참여자 점수의 스펙트럼이 0~100점이 아닐 수 있어요(ex 24~63점). 이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점수(24점)와 가장 높은 점수(63점)이 양 끝의 의자에 앉고, 다른 참여자는 점수에 따라 그 사이에 앉도록 안내해주세요.

3. 병역거부와 평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기

터키에서 활발히 평화운동을 하는 여성 활동가 힐랄 데미르의 병역거부 선언문을 함께 읽어보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내가 꿈꾸는 평화에 대해 글로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앞서 한 활동에서의 배움을 각자의 언어로 정리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꼭 선언문일 필요는 없고, 시나 일기, 키워드 꾸러미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글쓰기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더 뾰족하게 감각하게 되는 과정, 나의 생각을 새롭게 마주하고 과정, 나를 좀 더 또렷하게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글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병역거부와 평화를 각자의 언어로 기록해봅니다.

활동목표

병역거부와 평화를 나의 언어로 정리하며, 오늘의 배움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시간 20-30분

준비물 색지 또는 A4용지, 필기구

진행내용

- 1) 터키 여성 평화활동가 힐랄 데미르가 2004년에 발표한 병역거부 선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터키 여성 평화활동가, 힐랄 데미르의 병역거부 선언

나는 성차별주의, 위계구조,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나는 성차별주의, 위계구조,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에 기초한 학교교육을 거부한다.

나는 사람들이 거대한 기만을 위한 전쟁에서 죽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여성들에게만 스스로를 완전히 지적인 존재이자 개인이라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정부의 전쟁 정책과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군대를 거부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묻지 않은 채 나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우리의 운동 안에서 군사주의적 모습과 행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애국주의적 통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이가 다른 이들의 성정체성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마, 아내, 딸, 여자친구” 같은 딱지에 의해 규정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

나는 국경선에 둘러싸인 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양심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 모든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이다. 나는 전쟁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도 없는, 국경선이 없고 반권위주의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2004년 5월 15일 힐랄 데미르 Hilal Demi

- 2) 힐랄 데미르의 병역거부 선언문을 읽고 4-5명의 모둠으로 모여앉아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 공감되는 문장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동의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왜 그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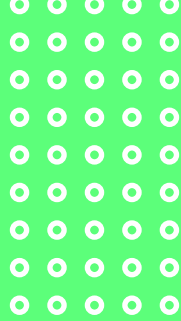
3) 이번에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병역거부와 평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봅니다. 글의 형태는 자유롭게 합니다. 선언문, 약속, 편지, 시, 노래가사, 키워드의 나열 뭐든지 좋습니다. 각자 5-10분의 시간동안 자유롭게 집중해서 생각을 언어로 정리해봅니다.

4. [달는활동] 함께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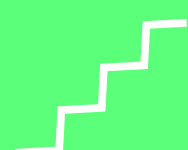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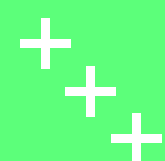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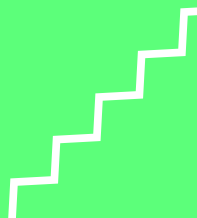
시간 30분

진행내용

- 1)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동그랗게 모여 앉습니다.
- 2) 함께한 배움에 대해 서로 소감을 나누고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 소감을 나누기 전에, 진행자가 참가자들이 활동을 상기할 수 있도록 진행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짧게 짚어 주어도 좋습니다.
 -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은 개선이 필요한지? 기억에 남는 누군가의 말은? 배움의 과정에서 새롭게 얻게된 생각이나 고민지점이 있다면?
- 3) 배움과정을 함께한 모두에게 서로 감사를 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참고자료



단행본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임재성, 그린비, 2011
『병역거부: 변화를 위한 안내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지음, 전쟁없는세상 엮음, 도서출판 경계, 2018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전쟁없는세상 엮음, 포도밭, 2014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하승우, 뜨인돌, 2008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책세상, 2001
『평화의 얼굴』 김두식, 교양인, 2007
『그들의 손에 총 대신 꽃을』 민용근, 끌레마, 2014
『플루토』 1~8권, 우라사와 나오키, 서울미디어코믹스
『초가집 있던 마을』 권정생, 분도출판사, 2007
『꽃섬고개 친구들』 김중미, 검동소, 2008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신시아 인로, 바다출판사, 2015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문승숙, 또하나의문화, 2007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베티 리어든, 나무연필, 2020
『대한민국은 군대다』 권인숙, 청년사, 2005

글

-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 <http://www.withoutwar.org/?p=15821>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http://www.withoutwar.org/?p=13688>
「병역거부 운동: 누구의 위치에서 어떤 평화를 말할 것인가?」 <http://www.withoutwar.org/?p=15866>

여성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

- 「숲이아의 병역거부 선언문」 숲이아 <http://www.withoutwar.org/?p=14675>
「여성은 왜 병역을 거부하는가」 왕유웬 <http://www.withoutwar.org/?p=15305>
「왜 나는 ‘병역 거부 선언’을 하는가?」 최성희 <http://www.withoutwar.org/?p=15299>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엄문희 <http://www.withoutwar.org/?p=15302>
「이 세계는 여성이 병역거부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 편이다: 엄문희, 최성희, 왕유웬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나영정 <http://www.withoutwar.org/?p=15319>

영화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김환태 감독, 2003

<708호 이등병의 편지>, 김환태 감독, 2004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 김환태 감독, 2020

<얼음강> 민용근 감독, 2012

<웰컴 투 동막골> 배종 감독, 2005

영상

[뉴스타파] 목격자들 12회 - 총대신 감옥을 선택한 사람들, 2015 <https://youtu.be/af6zmnLeN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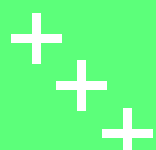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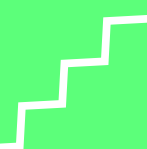
[뮤직비디오] 살얼음 <https://youtu.be/ZhVUPgfxOMQ>

교육의뢰 안내

이 교안을 다 보신 후에도,

병역거부라는 주제를 배움의 공간에서 직접 다루기가 여전히 어렵고 부담 되신다면 전쟁없는세상과 피스모모에 교육 의뢰를 요청하셔도 좋아요. 전쟁없는세상과 피스모모는 학교, 교육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단기, 중장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병역거부 활동가들과 소규모로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책 프로그램
- 역할극, 몸활동, 강의와 토론, 성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참여형 워크숍 (1일 워크숍~ 다회차 워크숍까지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 가능)
- 병역거부의 다양한 개념과 역사, 사회적 논의들을 소개하는 강연 프로그램



병역거부, 배움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 진행자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7

발행일 : 2020. 11. 30.
작성자 : 김영철, 이용석, 전세현
발행인 : 문아영
디자인 : 소행성디자인
발행처 : 피스모모,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병역거부 캠페인을 비롯하여 무기감시 캠페인, 비폭력 프로그램을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삼고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비폭력평화운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생산, 보급(계간지 전쟁없는세상, 책, 팸플릿 발간, 번역 등)을 통해 비폭력에 대한 철학이 운동에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ithoutwar.org
- 이메일: peace@withoutwar.org
- 연락처: 02-6401-0514
-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thoutwar.org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65, 3층 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는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을 통해 수평적인 서로배움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의미와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왔던 소설 주인공 ‘모모’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바쁘고 빠른 현대사회의 시간 속에서 멈추어 깊어지고, 울림이 있는 “돌아봄과 돌봄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피스모모의 모든 프로그램은 P.E.A.C.E. 페다고지를 기반으로 기획, 운영됩니다. P.E.A.C.E. 페다고지는 모모가 지향하고 실천하는 평화교육의 철학이자 원리임과 동시에 방법론이며 참여적, 대화식, 문화예술적, 비판-창조적, 낯설게 하기의 페다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eacemomo.org
-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
- 연락처: 02-6351-0904
-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acemomo0904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65, 3층 피스모모